

2020년

# 한반도 평화와 남북문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 일정 | 11월 11일 (수) 15:00-17:00



2020년  
**한반도 평화와 남북문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 프로그램

### 인사말

15:00-15:10

임경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김대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 사회

김범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 발표

15:10-16:10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화의 역할: 문학을 중심으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태경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교수)

#### 북한 문화 답사와 관광의 지향점

권현익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초빙석좌교수)

### 토론

16:10-17:00

천경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2020년 한반도 평화와 남북문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 발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화의 역할: 문학을 중심으로

03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태경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교수)

북한 문화 답사와 관광의 지향점

23

권헌익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초빙석좌교수)



2020년

## 한반도 평화와 남북문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화의 역할: 문학을 중심으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태경**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1/11/2020)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화의 역할

문학을 중심으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김태경 (북한대학원대)  
[kwkoo@kyungnam.ac.kr](mailto:kwkoo@kyungnam.ac.kr), [tkkim1983@gmail.com](mailto:tkkim1983@gmail.com)

### 발표 개요

- 문제설정: 평화체제, 적에서 친구로 가는 단계,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 평화과정에서 문학의 역할
- 평화 문화와 '경계인들'

## 평화체제, 적에서 친구로 가는 단계

### ■ 적에서 친구로의 정체성 변화?

- 행위자들의 갈등 최고조, 어느 일방의 완전한 승리 기대하기 어려울 때
- 이해관계, 이념 공유의 계기가 있을 때
- 제도를 매개로 서로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을 때

### ■ ‘안정적 평화’(stable peace, Boulding 1978)의 최초의 계기: 갈등당사자 중 한 행위자의 ‘일방적 포용’ (unilateral accommodation)

### ■ 두 번째 단계: 서로의 행동 제약가능한 '제도'(institution)의 건설

### ■ 세 번째 단계: '사회통합'(societal integration)

### ■ 네 번째 단계: 새로운 서사와 정체성의 형성

##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confederal governance)

### ■ ‘평화공존’ - ‘안보공동체’ - ‘연합’ (‘안정적 평화’의 가능한 형태들)

- 공동의 적 유무, 힘의 대칭성 정도에 따른 국가들의 결합형태

### ■ 연합적 거버넌스 주장: 국가 국정운영(statecraft) 평가에 중점, 정치군사적 협력 강조

- 민주평화론 (민주화 체제들끼리 평화 확립) 비판
- 기능주의론 (경제적 상호의존 통한 통합 확립) 비판

## 평화과정에서 문학의 역할

- **문학과 정치**: 적과 친구의 ‘감성적’ 구별, ‘우리’ 정체성 만들기의 매개, 특정 정세에서 서로 다른 태도와 선택을 만들어내는 전략의 성격, 정체성의 정치를 수행
- **문학의 상대적 자율성 문제**: 전쟁시기 한국/조선 문학,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 “원썩와의 투쟁에서 리용할 강력한 무기”, “精神的 毒가스”
- **문학계 내 ‘내전’**: 카프 내 자연주의 둘러싼 논쟁과 숙청, 남정현의 “분지”(糞池) 사건,
- **작품 속 정치**

## 문학/인과 새로운 서사와 정체성 만들기

-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새로운 서사, 정체성 만들기 노력**
  -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을 위한 행동(1998.5), 민족작가대회(2005, 평양), 6.15민족문학인협의회(2006, <통일문학>)
  - 정치적 결정 여파에 따른 자율성 부족, 사회문화적 협력 제도화 필요성
- **평화시대 한반도 문학이 무엇인가?**
  - 민족문학? 내부의 무시할 수 없는 간극, 균열 내포한 새로운 타자 설정하는 서사?
  - 코리아문학 정전 재구성 문제: 같은 문제 다른 해석 둘러싼 차이의 규명 선차

## 탈식민 탈패권 탈분단의 가능성: 정전 만들기의 무/의미와 코리아 문학의 불/가능성

### ■ 1930-1940년대 만주,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민족 개념

- 문화적 자율권과 소수자 권리 보장 (Bauer)
-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 다수 조선인 공산주의자, 소수 간부 중국인 공산주의자 갈등, “반민생단투쟁” (1932-1936)
- 반파시즘 인민전선(1935 코민테른 제7차 총회), 조선인민혁명군 조선독립혁명군 결성 결정, 김일성 등 조선인 공산주의자들 반대

→ 민족 주체 항일무장투쟁 및 공산주의운동 결정적 계기

### ■ 1950년대 민족 재정의: 1930년대 반민생단투쟁 기억, 항일무장투쟁 회상기(1959-), 1990년대 탈냉전기 민족 재소환

## '반민생단투쟁'과 두 개의 해석

### ■ 두 개의 해석의 '평화공존'

### ■ 남북한의 독자, 두 개의 해석 함께 읽기

- 한반도 내외 독자
- 한반도 내외 해석들

### ■ 차이들을 인정하는 새로운 서사와 정체성 만들기?



## 평화 문화를 위한 ‘경계인들’

구분		북한	
		인정	불인정
한국	인정	이순신, 전봉준	리순영, 안함광
	불인정	배운성(북권)	김시종, 재중 탈북 여성(마담B), 원폭 피해 조선인

- 새로운 서사, 정체성의 형성: 어떤 평화? 어떤 통합?
- 한반도 내외적 평화공존, 연합적 거버넌스를 위한 ‘우리’의 범위 경계 다시 보기, 차이 드러내기, 비평화의 일상에 대한 공감
- 코리아 문화/문학의 불/가능성: 월경자들, 경계인들을 통한 평화공존을 위한 갈등 해결 능력, 역량 성찰

## 평화 문화와 ‘경계인들’

- 북한 인정, 한국 불인정? 배운성(북권) 한설야(북권)
  - 월북, 재북, 납북 작가, 예술인: 1945, 1988(해금), 숙청/북권의 문제
- 한국 인정, 북한 불인정? 리순영, 립화, 안함광
  - 1950-1960년대 북한 문예계 숙청, 미북권
- 한국, 북한 불인정? 김시종, 마담B, 광귀훈, 김형률
  - 재외 코리안, 탈북 재중/재한 여성들, 아동들, 피폭 조선인들

## 배운성, 가족도(1935), 수술(1957)



## 김시중, “바래지는 시간 속,” <광주시편> ([1983], 2014)

거기에는 언제나 내가 없다.  
있어도 상관없을 만큼  
주위는 나를 감싸고  
평온하다.  
일은 언제나 내가 없을 때  
터지고  
나는 나 자신이어야 할 때를  
그저 헛되이 보내고만 있다.  
누군가가 속인다는 것도  
아니다.  
잠깐 눈을 돌린 순간  
시곱바늘은 째깍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 버린다.  
그 내리칸 시선의  
과중시계의  
시치미 뎀 초침 소리 속에서  
말이다.  
덕분에 밤은 탁한 늪이다.  
웅크리는 것만이 안식인  
듯한  
실러캔스<sup>coelacanth\*</sup>의  
선잠이다.

잠들어 버리면 시대도  
끝나겠지.  
끝난 시대에 가로누워서  
깨어 있고도 싶은 잠이겠지.  
남겨져서인가.  
놓쳐 버려서인가.  
무얼 본달 것도 없이 눈이  
그냥 깜박이고 있고  
어렴풋이 보이는 것은 나  
자신이다.  
유백색<sup>乳白色</sup> 어둠을  
드리우고  
단숨에 시간이 바래져 간다.  
웬지 그것만 보인다.  
번데기가 보는 저 빛바랜  
세계가 배어 나온다.  
아니 어찌면 나 자신이 껍질  
속이다.  
그 뜨거운 햇살의 난무 속에  
부화한 것은  
나비였던가.  
나방이었던가.

기억도 못 할 만큼 계절을  
먹어치우고  
터져 나왔던 여름의 내가  
없다.  
반드시 그곳에 언제나 없다.  
광주는 진달래로 타오르는  
우렁찬 피의 절규이다.  
눈꺼풀 안쪽도 멎해질 때는  
하얗다.  
36년\*\*을 거둬하고서도  
아직도 나의 시간은 나를  
두고 간다.  
저 멀리 내가 스쳐 지났던  
거리에서만  
시간은 활활 불꽃을 돋우며  
흘러내리고 있다.

\*고생대에 살았던 어류. 600만 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938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되면서 '살아 있는 화석'으로 불림(역자 주).  
\*\*'대일본 제국'이 조선을 직접 통치한 식민지 기간의 햇수.

## 한반도 평화와 문화의 역할: 문학을 중심으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김태경 (북한대학원대학교)

### I. 문제설정: 적에서 친구로 가는 단계

평화체제를 만드는 일은 적에서 친구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평화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처럼, 적이 친구가 되어야 할 당위는 없다. 적의 필요를 통찰하는 움베르토 에코(U. Eco)의 말이다.<sup>1)</sup>

적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체계를 측정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그것에 맞서는 장애물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적이 없다면 만들어 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설가 에코의 직관은, 소련이란 적이 사라지고 비정부조직인 알카에다()란 적이 새로이 발견될 때까지 미국의 정체성이 흔들렸음을 보게 한다. 적에서 친구가 되는 길은 공동의 적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묻는 ‘우리’ 만들기 즉 공동의 정체성 만들기는, 우리와 ‘그들’ 사이의 차이와 경계를 설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홉스적(Hobbesian) 의미에서 중앙권위체인 리바이어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국의 만국에 대한 투쟁’의 장으로 간주되곤 하는 국제관계에서 적에서 친구로의 정체성 변화는, 이해관계 또는 이념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때, 또는 제도를 매개로 서로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적에서 친구로 가는 국제적 평화과정의 전야는 행위자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다. 2017년 4월과 8월의 한반도 전쟁위기와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실험하고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을 때의 상황을 상기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이 물리적 폭력으로 비화하는 파국의 길이 보이지만, 일방이 타방에게 완전한 승리(total victory)를 거둘 수 없거나, 또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평화과정이 시작되곤 한다.<sup>2)</sup> 안정적 평화(stable peace)로 가는 최초의 계기는 갈등당사자 가운데 한 행위자의 ‘일방적 포용’(unilateral accommodation)이다.<sup>3)</sup>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치킨게임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한편이 공멸을 피할 수 있는 비겁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핵무력완성을 선언했음에도 같은 해 12월 19일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의 필요에

1) 움베르토 에코 지음, 김희정 옮김, 『적을 만든다: 특별한 기회에 쓴 글들』(서울: 열린책들, 2014).

2) J. Tonge, *Comparative Peace Processes* (Cambridge: Polity, 2014).

3) 이하에서 안정적 평화로 가는 네 단계와 안정적 평화 이후의 형태들은, C. Kupchan, *How Enemies Become Friends: The Sources of Stable Pea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의 내용이다. 세력균형을 넘어서는 평화에 대한 또 다른 상상력은 전쟁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와 문화적 폭력이 사라진 상황을 지향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의 구분이다. 이 구분은 궁극적으로, 평화를 “공감, 비폭력 그리고 창조성을 가지고 갈등을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게 한다. J. Galtung, C. Jacobsen and K.F. Brand-Jacobsen, *Searching for Peace: The Road to Transcend* (London: Pluto Press, 2000).

따라, 일방적 포용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선택을 했다. 2015년 1월부터 북한이 주장해 온 북한의 핵미사일실험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의 교환, 이른바 쌍중단의 사실상 수용이었다. 한미는 쌍중단이 북한의 불법과 한미의 합법을 교환하는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2019년 2월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미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평화과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쌍중단이란 최소공약수에는 동의했다.

두 번째 단계는 서로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institution)의 건설이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야합의서는 군축과 군비통제로 가는 이정표였다. 연합적 거버넌스의 맹아를 담지한 개성공동연락사무소도 남북한의 국가행동을 서로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단계는, 사회통합(societal integration)이다. 정부, 기업, 시민 사이에서 거래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단계다. 2017년 12월부터 재개된 한반도 평화과정은 이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서사와 정체성의 형성이다. 엘리트의 글들, 문학을 포함한 대중문화, 정치적 상징을 가지는 품목 등을 통해 문화적 공통성을 확보하는 단계다.

이 네 단계를 거친 후, “전쟁의 확률이 매우 작아서 전쟁이 실제 관련 당사자 누구의 계산으로도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인 “안정적 평화”(stable peace)가 도래했을 때,<sup>4)</sup> 그 형태는 ‘평화공존’, ‘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 ‘연합’(union)일 수 있다. 이 친구관계의 세 형태는 평화공존에서 안보공동체를 거쳐 연합으로 가는 진화의 단계로 설정될 수 있다. 공동의 적의 유무와 힘의 대칭성의 정도가 안정적 평화에 진입한 국가들의 결합형태를 결정하는 변수다.<sup>5)</sup>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공동의 적을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한반도에서는, 따라서 새로운 남북의 결합형태를 상상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평화과정의 지속을 위해 한반도 차원의 ‘연합적 거버넌스’(confederal governance)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새 경로는, 민주화 이후 한국정부의 정책으로 실험된, 적을 민주화하여 평화를 얻고자 하는 민주평화론이나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해 평화의 길을 가려는 기능주의적 접근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sup>6)</sup> 한반도 분단 이후 정치군사적 협력의 선행을 강조한 북한의 연방주의적 접근에 근접하는 경로다.<sup>7)</sup> 이 새 길은, 어떤 국가의 국내제도가 민주적인가 아닌가란 구분보다는 그 국가의 국정운영(statecraft)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에서 친구로 갈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민주평화론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 기능주의의 실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적 상호의존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 경로는 정치군사적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개성공업지구의 폐쇄의 경험처럼,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즉 교역이나 투자보다는 외교를 평화의 길의 결정적 요소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기능주의적 접근과도 다른 경로다.

## II. 평화과정과 문학의 역할

인간의 이성적, 윤리적 활동과 구분되는 미적 활동으로서의 문학은, 정치적인 것의 본질로 간주되곤 하는 적과 친구의 감정적 구별을 하는 역할을 한다.<sup>8)</sup> “삶을 위한 장비”로서의 문학은

4) K. Boulding, *Stable Pea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8), p. 13.

5) J. Parent, *Uniting States: Voluntary Union in World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6) Kupchan, *How Enemies Become Friends*.

7) 공제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8) 칼 슈미트, 김효전·정태호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개념』(파주: 살림, 2012).

우리라는 정체성 만들기의 한 매개다.<sup>9)</sup> 예술을 위한 예술조차도 그 자신의 정치적 기능 내에서 의미를 갖는다. 즉 쓸모없음의 쓸모로 문학을 정의할 때도, 문학의 비정치성의 정치성이 드러나게 된다.<sup>10)</sup> 즉 문학은 그 자체로 “정치행위를 수행”한다.<sup>11)</sup> 대중의 정서를 재현하고 구성하는 매체로서 문학은, 특정 정세 속에서 서로 다른 태도와 선택을 만들게끔 한다는 의미에서, 전략의 성격을 갖는다. 문학은 미적 재현을 통해 적과 친구를 선택하는 정체성의 정치를 수행한다는 의미이다.<sup>12)</sup>

정치의 극단적 연장사건인 전쟁시기에는 문학이 구현하는 정체성의 정치의 극단을 보게 된다. 한국/조선전쟁의 기간 동안 한국문학과 조선문학은 서로를 적으로 생산하는 작품을 쏟아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기 북조선 소설가 한설야의 반미소설로 1951년 4월 『문학예술』에 발표된 작품 “승냥이”는 “과거에 조선에와서 십자가들 들고 『하느님』을 우르러 주여!를 부르던 미국 선교사들은 오늘 와서 십자가 대신에 카빙총을 들고”라는 수령의 ‘교시’로 탄생한 작품이다.<sup>13)</sup> 북조선에서 문학은, 김일성의 말처럼 “원수와의 투쟁에서 리용할 강력한 무기”였다. 같은 시기 남한의 문단은, 마치 북조선에서 문학이 당의 문학이 되어야했던 것처럼, 군과 카르텔을 형성했다.<sup>14)</sup> 문인들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군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물리적 전쟁을 지원하는 이념전쟁의 수단인 “精神的 毒가스”로 문학을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연합이었다. 남한과 북조선 모두 전쟁승리를 고무하는 문학을 필요로 했고, 결국 문학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가 되었다.

남한과 북조선 모두 전쟁의 와중에 문학사조를 둘러싼 내전(內戰)을 거치기도 했다. 카프의 구성원이었지만 전향한 팔봉(八峯) 김기진은 향락문학이 범람하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승리를 위한 전쟁문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적을 공산주의문학으로 설정했지만, 전선의 피비린내를 담은 예술성과 흥미성을 갖춘 작품의 부재를 지적하며 문학평론가 곽종원은 그 원인의 하나로 “19세기 자연주의 문학형식의 고집”을 들었다.<sup>15)</sup> 북조선에서 자연주의는 주요타격방향에서 주적으로 승격되었다. 카프의 이론가이자 시인인 임화를 비롯한 남로당 계열의 문학인들은 자연주의라는 미명 하에 물리적 숙청을 당하게 된다. 김일성은 1952년 12월 15일 한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라는 보고에서, “문학 예술 분야에 조성되고 있는 반인민적 반당적 문학과 투쟁”을 언급한 바 있다.<sup>16)</sup>

9) K. Burke, 1938. “Literature as Equipment for Living,” *Direction 1*, Reprinted in D. Richter, ed., *Classic Texts and Contemporary Trends* (Boston: Bedford Books, 1998).

10) 김현, 『한국 문학의 위상』(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9).

11)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옮김, 『문학의 정치』(고양: 인간사랑, 2009).

12) 문학과 정치는 세 층위에서 관계한다. 문학은 현실정치의 자장 안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 현실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문학의 상대적 자율성은 감소한다. 특히 극단적 정치의 한 형태인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현실정치는 적과 동지를 가르는 이분법의 본질로 현상하기 때문에, 문학도 양자택일의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작가의 문학사조 선택이 현실정치의 문학적 대리인인 이론가와 평론가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놓이는 사태가 발생한다. 문학과 정치의 두 번째 층위는 문단 내부의 정치다. 문단 내부에서 갈등하는 진영의 형성은, 특정 문학사조와 결합되어 있다. 문학의 쓸모 또는 문학의 공공성, 즉 문학적 실천의 내용과 형태를 둘러싼 진영대립은, 특정 진영과 특정 사조의 연계로 나타난다. 세 번째 층위는 작가가 생산한 작품 속의 정치다. 작가가 특정 사조를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자신의 (비)정치적 의도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도 정치의 한 형태로 포착할 수 있다. 창작의 결과는 이론가와 평론가에 의해 특정 사조를 투사한 작품으로 해석된다.

13) 김일성, 『김일성장군의 격려의 말씀: 전체 작가 예술가들에게』(평양: 국립출판사, 1951), p. 9.

14) 서동수, 『한국전쟁기 문학담론과 반공프로젝트』(서울: 소명출판, 2012).

15) 서동수, 『한국전쟁기 문학담론과 반공프로젝트』, pp. 219-229.

16)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보고: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조선중앙년감 1953』(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3), pp. 55-72. 한효, “자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조선문학 (1),” 『문학예술』 1월호(1953). 임화와 함께 한 작가들은, 객



남한과 북조선 각각의 내부에서 진행된 문학내전의 정도는 상이했다. 북조선에서는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실제 전쟁이었다면, 남한에서는 문학사조를 둘러싼 말의 공방이었다. 북조선에서는 문학사조의 일원화를 결과하는 전쟁이었다면, 남한에서는 문학사조의 다원주의를 반영하는 공방이었다. ‘문학의 분단체제’의 이 비대칭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1965년 3월 남한의 『현대문학』에 발표된 남정현의 반미주의 단편소설 “분지”(糞池)를 두 달 뒤 북조선의 『조국통일』이란 매체가 전재하면서, 작가가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이다. 가상의 ‘향미산’(向美山)을 배경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적대를 다룬 “분지”가 주권-민족주의적(sovereign-nationalist) 반미주의를 보여준다면, 한국전쟁 기간 반미와 반기독교를 등치한 “승냥이”는 현재도 북조선에서 연극과 영화로 재현될 정도로, 급진적(radical) 반미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sup>17)</sup>

이 두 작품의 반미주의에는 차이가 있지만, 문학의 분단체제 하에서 미국이란 공동의 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민족주의적 연대가 가능할 수 있음을 ‘분지사건’은 예시했다.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민족주의는, 약소국의 시각에서 제국주의의 인식구조를 역전시킨 형태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와 이형동상의 인식구조라 할 수 있다.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주의를 동원하는 탈식민(post-colonial) 국가의 토착엘리트가 제국주의국가의 주류와, 명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인식적으로 정책적으로 공모하는 모습이 발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미주의의 이후에 대한 고려가 있을 때 비로소 식민주의를 ‘넘어서’(beyond)의 의미를 가진 탈식민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sup>18)</sup>

한반도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평화과정이 도래하면, 문학과 문학인은 적에서 친구로 가는 길의 한 단계인 새로운 서사와 정체성 만들기를 위해 주목의 대상이 되곤 한다. 1998년 5월 제정된 “남북사회문화협력 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동이 그 가운데 하나였다. 2005년 평양에서 열린 민족작가대회는, “지역정신의 건강성을 모아서,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아시아 아프리카 연대로 가자!”는 탈식민·탈패권·탈분단의 구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sup>19)</sup> 이 대회를 토대로 2006년 10월에는 ‘6·15민족문학인협의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협회 기관지로 『통일문학』을 발간하기로 합의한 것은, 문학을 통해 새로운 서사와 정체성을 만들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남한의 주기적 정권교체, 북한의 연방주의적 접근, 남북의 국가행동을 제약하는 제도의 미비로 인해 문학교류를 포함한 사회문화교류 전반은 자율성을 획득할 수 없었다.<sup>20)</sup> 적에서 친구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돌파구가 장기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도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함을 한국의 민주화 이후 남북관계는 가르쳐 주고 있다. 2017년 12월부터 재개된 한반도 평화과정은 이 교훈에 대한 인식의 소산이다.<sup>21)</sup>

관주의적 예술관, 형식주의와 예술지상주의, 주관주의적 실험실적 예술, 형식주의와 자연주의, 영탄과 패배주의 등을 담은 작품을 썼다고 비판받았다. 이 작가들이 자연주의적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된 8·15 해방 전 작품은, 김남천의 “소년행”, “요지경”, “제퇴선”, “무자리”, “철령까지”, “사랑의 수족관”, “랑비”, 리태준의 “오몽녀”, “사막의 화원”, “복덕방”, “녕월령감”, “사상의 월야”, “구원의 녀상”, “청문 무성”, 림화의 “네 거리의 순이”, “우리 오빠의 화로”였고, 해방 후 작품은 김남천의 “원리”, “꿀”, 리태준의 “해방 전후”, “호랑이 할머니”, “농토”, “천사의 분노”, “백배 천배”, 림화의 “너 어느 곳에 있느냐”, “바람아 전하라” 등이었다.

17) Kab Woo Koo, “The Discursive Origins of Anti-Americanism in the Two Koreas,” *Asian Perspective*, 41: 2 (2017).

18) 한국에서 탈식민주의 논의는, 고부웅 편,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참조.

19) 김형수, “통일문학사를 다시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탈식민·탈패권·탈분단의 기획으로 정리하고 있는 글은, 구갑우, “탈식민·탈패권·탈분단의 한반도 평화체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분단 70년의 국제관계』(서울: 선인, 2016) 참조.

20) 이우영, “남북정상회담과 사회문화교류,” 『통일정책연구』, 27: 1 (2018), pp. 47-64.

21) 구갑우,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 『한국과 국제정치』, 34: 2 (2018), pp.

다시금 평화시대를 살며 우리는 다시금 문학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할 시점이다. 남북 공동의 정체성 마련을 위해 새로운 적을 만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적을 설정하지 않은 우리 만들기가 가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남북교류에서 “‘민족문학’이라는 낱말이 떠맡는 필수적인 몫이” 있다고 하지만, 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남한과 북조선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개념에 대한 합의의 폭이 그다지 넓지는 못하”지만 민족문학을 공동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백낙청의 지적처럼, “개개의 민족문학인이 통일전사가 되기를 다그치는 북측의 공식노선은 남녘에서 작가 개인의 의도보다 작품 자체의 성향을 중시는 비평자세와 거리가 있다.”<sup>22)</sup> 문학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기능적 시각에서 정의하는 북조선에서 문학의 역할이 “정치사상교양적기능, 생활인식적기능, 문화정서교양적기능”에 있다면, 그 가운데 정치사상교양적 기능이 최전선이다.<sup>23)</sup> 예를 들어 핵문제와 외교정책을 다루고 있는 북조선의 소설 『영생』이나 『운명』에 버금가는 남한의 문학작품은 무엇일까를 묻는다.<sup>24)</sup> 문학의 분단체제의 특이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평화의 시대에 남북이 적에서 친구가 되는 ‘코리아 문학’을 생각한다면, 그 문학을 위한 정전의 (재)소환과 새로운 창작이 요구된다. 물론 작가의 이념과 행동이 작품의 감동을 만드는 유일한 원천은 아니라는 문학주의적 고민과 더불어다.<sup>25)</sup> 하나의 실험으로, 1930년대 동만주에서 발생한 민생단사건을 소재로 한 김연수의 『밤은 노래한다』와 최학수·현승걸의 『백두산 기슭』을 함께 읽어 본다.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다른 해석을 가진 작품들이다. 다른 해석이란 차이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 코리아 문학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일차적 이유다. 둘째로는, 신동엽의 “껌테기는 가라”와 “술을 많이 마시고 난 어젯밤에는”을 문익환의 “비무장지대”와 “꿈을 비는 마음”과 비교하며 현재의 한반도 평화시대에 정전 만들기를 하는 김형수의 글을 읽으며, 그 문제의식이 지금 여기서의 평화과정과 어울리는가를 고민하면서다.<sup>26)</sup>

### III. 탈식민·탈패권·탈분단의 가능성: 정전 만들기의 (무)의미와 코리아 문학의 (불)가능성

1945년 해방 후 북쪽으로 귀환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한 김일성을 비롯한 만주파 공산주의자들은 1930~1940년대에 한반도 밖의 공간인 만주에서 민족 개념을 ‘경험’했다.<sup>27)</sup> 당시 만주에 있던 서울-상해파, ML파, 화요회 등 다양한 분파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1919년 창설된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조직인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Comintern)]의 일국일당 지침에 따라 1931년경 개별입당의 형식으로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에 소속되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sup>28)</sup>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공산당 산하에서 초

137-169.

22) 백낙청,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파주: 창비, 2006), pp. 24-26.

23) 김정일, 『주체문학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6.

24) 예를 들어 이 정치소설에 대한 분석으로는, 유임하·미야모토 타카노부, 『정기종의 장편 운명과 김정 은 시대의 국가서사』, 『동악어문학』, 77 (2019), 163-188.

25)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언명은 그 지점에 대한 통찰이다: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거나 지지 방문을 하고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논문을 쓸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을 시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사회참여와 참여시 사이에서의 분열, 이것은 창작 과정에서 늘 나를 괴롭히던 문제이다.” 진은영, 『문학의 아토포스』(서울: 그린비, 2014), p. 16.

26) 김형수, “신동엽도 문익환도 없는 서울,” 『창비주간논평』, 2019년 4월.

27) 민족과 관련한 논의는, 구갑우, “한반도 민족 개념의 분단사,” 구갑우·이하나·홍지석,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pp. 51-54의 축약·수정이다.

민족적 연대를 하고 있었지만, 조선의 독립이란 민족주의적 과제는 중국공산당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드러나듯이, 소수민족의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의식을 강조한 오스트리아 사회주의자 바우어의 민족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전면적인 문화적 자율권과 소수자 권리를 보장받으려 했다.<sup>29)</sup>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던 조선인 공산주의자와 상대적 소수였지만 간부들에서는 다수였던 중국인 공산주의자 사이의 갈등은 1930년대 이른바 '반민생단투쟁'으로 나타났다.

중국공산당의 좌경노선으로 만주 일대에 만든 소비에트인 유격구에 침투한 일제의 간첩을 숙청한다는 취지로 1932년부터 1936년까지 진행된 반민생단투쟁의 과정에서 조선인 공산주의자 수백 명이 같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학살되었다.<sup>30)</sup> 중국공산당 동만특위는 당시 한인의 자치를 주장하는 친일 단체인 민생단이란 조직을 한국 민족주의와 동일시하고 있었다고 한다.<sup>31)</sup> 맑스주의와 민족주의는 19세기 맑스주의의 출현시점부터 갈등 관계였지만, 맑스주의자들은 식민지 민족해방 투쟁의 등장과 더불어 민족주의와의 통일전선을 의제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sup>32)</sup> 1935년 코민테른 제7차 총회에서는 반파시즘 인민전선이 승인되면서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자율성이 다시금 인정되면서,<sup>33)</sup>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1936년 2월 만주에서 반민생단투쟁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선인들만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이나 조선독립혁명군을 결성한다는 결정과 함께였다. 이로써 조선인의 민족해방투쟁의 자율성이 확보된 셈이었다.

그러나 조선인만의 '민족군대'를 창설한다는 결정은, 김일성을 비롯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반민생단투쟁의 여진이 남아 있는 조건에서, 김일성을 비롯한 만주파 공산주의자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의 결성이 조선인의 고통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고려를 했기 때문이다.<sup>34)</sup> 그러나 반민생단투쟁은 김일성과 만주파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민족이 주체가 되는 항일 무장투쟁 및 공산주의운동을 경험한 결정적 계기였다. 물론 김일성이 1942년 소련 영내에서 작성하여 중국인 상관에게 보고한 글에서 반민생단투쟁을 반혁명조직에 대한 숙청으로 정당화하는 기술을 하기도 했지만,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민족주의가 충돌했을 때 김일성과 만주파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1959년경부터 항일무장투쟁 회상기를 발간하면서 1930년대의 반민생단투쟁의 기억을 주체로서 민족을 재정의하는 계기로 만들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지구적 수준에서 냉전이 해체될 즈음인 1990년대 초반 위기에 직면한 김일성은 1930년대를 회고하면서 국제당과 대국의 공산당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다시금 민족을 불러오게 된다.<sup>35)</sup>

28) 이덕일, "민생단 사건이 동북항일연군 2군에 미친 영향," 『한국사연구』, 91, 1995, pp. 134-135.

29) 로버트 영, 김택현 옮김,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박종철출판사, 2005, pp. 214-216

30) 김성호, "민생단사건과 만주 조선인 빨치산들," 『역사비평』 51 (2000).

31) 이덕일, "민생단 사건이 동북항일연군 2군에 미친 영향," p. 145.

32) 민생단사건은 "상처받은 민족주의"(wounded nationalism)로도 묘사된다. 한홍구, "민생단 사건의 비교사적 연구," 『한국문화』 25, 2000.

33) 로버트 영, 『포스트식민주의』, pp. 268-277.

34) 이덕일, "민생단 사건이 동북항일연군 2군에 미친 영향," p. 158-160. 김일성은 한국전쟁의 와중에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자기 조국과 인민에대한 높은 긍지는 썩어빠진 배타주의적인 모든 낡은 잔재와 인습을 숙청하는데서만이 그 참된 본질을 갖게되는 것입니다.//때문에 여기에있어 무근거한 민족주의적 우월감이라든가 타민족에게 대한 경멸감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것이며 고상한 국제주의적 정신으로 일관되어야할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는것입니다." 김일성, 『김일성장군의 격려의 말씀』(평양: 문화선전성, 1951).

35) 식민지 시대에 나타난 민족 개념의 '원분단'은 문화공동체로서 민족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자와 스탈린의 정의에 따라 민족 개념의 객관적, 주관적 기준을 수용하지만 민족이 한시적이라고 생각했던 사회주의자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이 원분단과 더불어 민족주의자 내부에서도 독립과 자치라



『밤은 노래한다』와 『백두산 기슭』에 대한 비교읽기다.<sup>36)</sup>

자본주의적 대공황의 와중이었던 1932년 10월부터 1935년 2월까지,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1936년 3월까지, 간도, 동만, 연변 등의 여러 이름을 가진 지역에서, 역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최소 500명 최대 2,000명에 달하는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당시 간도 ‘유격구’의 인구는 2만 정도였다고 한다. 그 가운데 자기 확신을 가진 조선인 공산주의자가 몇 명 정도였는지 알기란 어렵지만, 단순한 인구비례로 보더라도 ‘대량학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국제연대와 조선독립 그리고 공산의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고자 했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서로를 친일조직으로 1932년 2월 만들어졌다 같은 해 7월에 해체된 민생단의 일원으로 규정하여 죽이고 죽는 대규모 희생제의를 치른 것이다. 이른바 ‘반민생단 투쟁’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김연수의 『밤은 노래한다』는 이 사건을 다룬 최초의 남쪽 소설이다. 한홍구, 김성호, 신주백, 이덕일 등 역사학자들이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질문에 가중치를 두며 반민생단 투쟁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하고자 했다면, 『밤은 노래한다』는 그 참극 속에서 주관의 세계를 읽어낸다. “1933년 간도의 유격구에서 죽어간 조선인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간도의 조선인들(에게) … 객관주의란 없었다.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주관으로 결정되는 가혹한 세계뿐이었다.” 『밤은 노래한다』는 그 시절 간도의 소비에트에 빛과 어둠, 낮과 밤의 경계가 없었음을 보여주려 한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세계, 바로 그것이다. 역사학자의 언어로 ‘재현’할 수 없는, 아니 재현이 불가능한, 그 세계를, 소설은 울리게 하고 있다.

울림을 만드는 일이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김연수, 『과학이 나를 부른다』) 김연수의 소설이기에, 『밤은 노래한다』에서 ‘김일성’의 자취를 찾아보려는 시도가 불순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반민생단 투쟁에 관한 남북의 역사학적 연구는 좋은 싫든 그 때 거기에 있었던 김일성을 재현하려 하고 있다. 대부분의 남쪽의 역사학 논문은, 1932년 중국공산당에 입당한 김일성에 대해 “민생단이라는 진술이 많다”는 기록을 언급한다. 그럼에도 김일성은 살아남았다. 지금 거기 북한의 ‘공식’ 역사는, 반민생단 투쟁을 조선공산당의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1936년 3월 동북항일연군의 사장이었던 김일성이, 공식적으로 김일성의 이 지위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민생단 혐의를 받고 있던 100여명과 관련된 제 문서를 불태우고 그들을 포용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밤은 노래한다』에는 그 ‘역사’가 없다. “조국과 민족만 한 야망이 없소.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오”라고 말하는 한 인물은, 조선인에게는 좋은 직장이었던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서 ‘측량’의 불가능성을 익히던 직원이었지만 사랑이라는 사건 때문에 조선인 공산주의자들과 삶이 얽히면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깨달음을 얻었다가 그 구분이 없음을 몸의 생사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소설의 화자 김해연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그 후’, 김해연은 ‘진짜’ 공산당원이 되어 돌아온다. 그렇게 소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로 시작되는, 김해연을 ‘사랑했기에’ 김해연을 사지에 몰아넣기보다는 스스로가 죽는 선택을 하는 조선인 공산주의자 이정희의 마지막 편지를, 마지막에 남겨 둔다.

김일성 ‘서사’의 집합인 북한식 소설 ‘불멸의 력사’ 총서 가운데서도 걸작으로 평가받았던 현승걸·최학수의 『백두산 기슭』(1978년 1판)에서는, ‘밤을 태워’ 민생단원으로 지목받았지만 그럼에도 그를 보듬은 ‘조선혁명의 지도자’ 김일성을 재현하려 한다. 김일성이 민생단원이라는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분석하려는 역사학자와 달리, 김일성의 역할이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은유적으로 그 역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밤은 노래한다』와 달리, 반민생단 투쟁의 오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하고 싸워 그 오류를 시정한 것이 김일성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공식

는 정치적 목표에 따라 민족의 영속론과 한시론이 출현했다. 사회주의자 내부에서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민족소멸론과 민족을 주체로 생각한 사회주의운동이 공존했다. 구갑우, “한반도 민족 개념의 분단사.”

36) 구갑우, “소설 『밤은 노래한다』 그 잠언의 여운,” 『교수신문』, 2009년 3월 23일.

역사를, 『백두산 기슭』이라는 ‘소설’은, “현대인들속에 퍼지고있는 그분에 대한 이 신비로운 전설들은 그 어떤 사실들의 루적과 인민적념원의 교차현상이 아니겠는가”라고 정당화한다. 역사책보다 소설책이 ‘근대’의 과학에 가까운 형국이다. 남북의 정치경제체제의 차이가, 재현의 형태로서 논문과 소설의 위상의 전복을 가져오는 것일까.

잠언의 잔치, 그래서 소설로서의 장단점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밤은 노래한다』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알고 싶다면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지금 어디에 있나요?”라는, 살아 있다면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질문을 마지막에 다시 불러오는 『밤은 노래한다』는, “유토피아란 폭력을 은폐하려는 자들의 거짓 관념에 불과하다”는 잠언을 생산하면서, “열망은 단지 열망하는 그 순간에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뿐이”라는 작가의 강한 후기와 공명하고 있다. 진보의 열망이란, 그 때 거기서 지금 여기서 불가능과 마주하지만 불가능을 넘어 서지 못한다는, 그래도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작가의 명령이다. 남의 『밤은 노래한다』와 북의 『백두산 기슭』을 읽으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 누가 왜 기억하려 하는가, 라는 질문에 새삼 몰두하게 된다.

첫 질문은, 『밤은 노래한다』와 『백두산 기슭』이 한반도 평화시대에 부응하는 남북의 소설로 소환될 수 있을까다. 『밤은 노래한다』가 보여주는 참과 거짓, 선과 악의 이항대립을 흐리는 탈근대적 문제설정이 남한 내부의 진보에게는 불편하고 보수에게는 주제가 불온하다. 북조선에서 김일성이 부재한 반민생단투쟁은 상상불가다. 『백두산 기슭』은 남한의 독자에게 소설 이전인 신화로 읽힐 것이다. 같은 소재이지만, 하나의 새로운 서사와 정체성 만들기가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두 작품이다. 이 차이를 ‘충분히’ 인정하며, 이 차이가 하나가 되는 위험을 회피하며, 이 차이가 공존할 수 방식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적에서 친구로 가는 길의 마지막 단계인 새로운 서사와 정체성 만들기의 지점이 전쟁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정적 평화라면, 그 평화를 실현하는 정치형태는 ‘평화공존’이다.<sup>37)</sup>

두 번째 질문은, 이 둘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남북의 독자가 가질 수 있을까다. 1989년 문익환이 ‘불법’ 방북을 했을 때, 김일성에게 남북의 서적 공동판매대 설치를 제안했다고 한다. 김일성은 수용하지 않았다.<sup>38)</sup> 함께 차이가 있는 작품을 읽지 못한다면, 적에서 친구로 가는 길의 최종 단계가 봉쇄될 수밖에 없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과 문학적 형상화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서사와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세 번째 질문이다. 적에서 친구로 가는 길에서, 문학이 생산하는 정체성의 정치의 향방을 물으며, 불가능을 상상한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미래의 기억에 대한 질문이다.

#### IV. 한반도 평화 문화와 ‘경계인들’

본 절은 미완으로 평화 문화를 위한 경계인들 관련 인용 노트를 추가한다.

37) Kupchan, *How Enemies Become Friends*.

38) 김형수, “통일문학사를 다시 생각한다.” p 64.

구분		북한	
		인정	불인정
한국	인정	이순신, 전봉준	리순영, 안함광
	불인정	배운성(북권)	김시중, 재중 탈북 여성(마담B), 원폭 피해 조선인

1. 북한 인정/한국 인정

이순신/전봉준

2. 북한 인정/한국 불인정

1957년 5-10월 아동문학 논쟁, 리순영-백석<sup>39)</sup>

얼마 전에 리 순영의 동요 《고양이》(미 발표 작품)를 둘러싸고 적지 않게 의견들이 대립되었었다. 혹은 좋은 작품이라고 하며 혹은 내용이 공허하다고 하며 혹은 잔조롭다고 하며 혹은 언어의 유희라고 하였다./나는 연구 과제로 그 시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하기 위하여 그 시를 여기에 소개한다./ 고양이가 야옹/ 낮잠 깨였네/ 처마끝 참새 한 놈/ 조금 흘기고/ 돌개 바람 / 팽그르르/ 도는 바람을/ 쫓르르 쫓아가/ 재롱 괴구요/ 독 뒤에 야옹/ 쥐잡이 가네.//장성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이 시는 그들에게 어떠한 새 정신을 보태어 주었다고 말해야 할 것인가?/이 동요는 시인이 그들에게 무엇을 들려 주고 싶어 견딜 수 없어 쓴 동요라고 말해야 할 것인가?/나의 견해에 의하면 이 시에는 그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시 정신이 약하다. 이 시는 다만 고양이가 생태를 묘사한 그 이상의 것이 없다./보는바 이 시에는 실재적 사실 이상의 것이 없다./즉 그가 남다르게 느낀 새 발견의 경지가 없다. 낮잠 깬 고양이가 참새를 한번 흘기고 바람과 재롱한 번 피우고 그 답엔 쥐 잡이를 가고... 고양이가 생태의 어느 한 측면, 원형 그대로의 자료에다가 시인의 가슴을 안타깝게 찢어준 느낌의 물'결! 즉 시인이 발견한 것으로 첨가하지 못한 채 다만 아름다운 언어로써 사진 한 장 찍었을 뿐인 관조적인 것 밖에, 그것을 통하여 주려는 그 어떤 것도 명백하지 않은 시라고 본다./나는 유년들에게 주는 동요는 아름다워야 하는 동시에 내용이 즉 시인이 발견하여 아동들에게 주려는 것이 명백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백 석의 동시 《메'돼지》, (《아동 문학》 1957,4)도 모호하게 해석될 측면을 띠고 있는 점에서 성공하지 못한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sup>40)</sup>

3. 북한 불인정/한국 인정

- 1988년 한국에서 월북 작가 예술인 해금 조치

- 북한에서 북권: 배운성, 한설야

39) 이영미, “북한의 자료로 본 백석의 생애,”  
40) 리원우, ; 이영미 pp. 178-179에서 재인용.

4. 북한 불인정/한국 불인정

- 재일조선인 시인, 김시중(1929- ),
- 월북 피해 한국인, 곽귀훈(1924- ), 김형률
- 탈북 재중/재한 여성, 아이들, 마담B

김시중, “바래지는 시간 속,” <광주시편> (1980.5.20.)

바래지는 시간 속

거기에는 언제나 내가 없다.  
있어도 상관없을 만큼  
주위는 나를 감싸고 평온하다.  
일은 언제나 내가 없을 때 터지고  
나는 나 자신이어야 할 때를 그저 헛되이 보내고만 있다.  
누군가가 속인다는 것도 아니다.  
잠깐 눈을 돌린 순간  
시곱바늘은 째깍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 버린다.  
그 내리간 시선의 궤종시계의  
시치미 뎀 초침 소리 속에서 말이다.  
덕분에 밤은 탁한 늪이다.  
웅크리는 것만이 안식인 듯한  
실러캔스coelacanth\*의 선잠이다.  
잠들어 버리면 시대도 끝나겠지.  
끝난 시대에 가로누워서  
깨어 있고도 싶은 잠이겠지.  
남겨져서인가.  
놓쳐 버려서인가.  
무얼 본달 것도 없이 눈이 그냥 깜박이고 있고  
어렴풋이 보이는 것은 나 자신이다.  
유백색乳白色 어둠을 드리우고  
단숨에 시간이 바래져 간다.  
웬지 그것만 보인다.  
번데기가 보는 저 빛바랜 세계가 배어 나온다.  
아니 어찌면 나 자신이 껍질 속이다.  
그 뜨거운 햇살의 난무 속에 부화한 것은  
나비였던가.  
나방이었던가.  
기억도 못 할 만큼 계절을 먹어치우고  
터져 나왔던 여름의 내가 없다.  
반드시 그곳에 언제나 없다.  
광주는 진달래로 타오르는 우렁찬 피의 절규이다.  
눈꺼풀 안쪽도 멍해질 때는 하얗다.  
36년\*\*을 거듭하고서도

아직도 나의 시간은 나를 두고 간다.  
저 멀리 내가 스쳐 지났던 거리에서만  
시간은 활활 불꽃을 돋우며 흘러내리고 있다.

\*고생대에 살았던 어류. 600만 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938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되면서 '살아 있는 화석'으로 불림(역자 주).

\*\*'대일본 제국'이 조선을 직접 통치한 식민지 기간의 했수.



2020년

## 한반도 평화와 남북문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 북한 문화 답사와 관광의 지향점

권 현 익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초빙석좌교수





## 북한 문화 답사와 관광의 지향점

권헌익 (케임브리지대학 사회인류학 교수/  
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초빙교수)

오늘날의 북한은 외부인들에게 접근이 어렵고 자유롭지 않은 곳 중에 손꼽히는 곳이다. 가족친지 방문은 물론, 공무수행으로서의 방문 그리고 관광 등 여러 영역에서 그러하다. 이산가족 상봉이 기약 없이 중단되어있고 이전에 나름 활발했던 개성과 금강산의 관광특구 역시 문이 닫힌 지 오래다. 일부 국제기구나 NGO를 제외하고 민간교류 역시 정체되어있다. 이 상황은 주로 북한 정권의 핵무장국가를 위한 움직임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주요 반응인 제재체제에 기인한다. 그나마 중국인들의 단체관광과 소규모 해외 관광 유입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2020년 3월부터 지구적 팬데믹 사태에 직면하여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현재 전면적으로 통제·중단된 상황이다. 그래서 관광의 영역에서 작금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다음과 같은 아이러니가 있다. 2019년까지 북한이 이 영역에서 지극히 예외적인 곳이었는데 2020년 현재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면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이 북한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찌보면 북한 주민들의 오래된 경험이 이젠 그들만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관광의 자유를 포함한 이동의 자유는 근대사회의 성립과정에서 중요한 가치였고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인에게는 물론 수많은 지구 시민들에게 그들의 현대인으로서의 입지와 정체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권리이자 자유이다. 이때 관광이란 행위는 일상의 시공간에서 벗어나서 여가활동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탈피해서 생경한 물질문화와 타인의 생활문화를 경험하는 의미에서의 관광도 포함한다. 한국의 관광문화에서 전자(즉 레크리에이션으로서의 관광)의 예로 예전의 관광버스 관광이 있다면 후자(즉 사이트시잉으로서의 관광)는 배낭여행이란 행위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한다. 이 두 다른 행위로서의 관광에는 물론 세대의 차이, 나아가서 (특히 서구역사에서는) 계급의 차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서유럽 사회의 지식계층과 상류계층은 주로 후자의 의미에서 관광을 이해하였다면 (이 행위와 제국의 팽창주의와의 상호관련성은 또 다른 주제이다), 이후 20세기 중후반으로 진입하면서 노동계층이 관광에 진입하면서 소위 마스투어리즘이 전면에 등장했다. 동시에 교육과 교양 영역에서 쥘 베른의 그 유명한 『80일간의 세계일주』 (1874)에서 보이듯이 서적과 미디어를 통한 관광체험(특히 지리와 지리학에서)이 중요해졌다. 이때의 체험이란 간접체험 혹은 상상의 체험, 그래서 전세버스를 타고 직접 가서 직접 내 눈으로 보는 형식의 관광과는 질적으로 다른 체험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모든 소위 ‘직접체험’이 실제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이미지와 상상으로서의 ‘간접체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 다름의 인식에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북한을 관광문화의 측면에서 조명할 때, 이 문화의 세 가지의 각기 결이 다른 하위 영역을 생각할 수 있다.

(1) 문화와 역사 체험으로서의 관광: 이 영역은 북한주민들에게도 기존하는데 그중 특기할 만한 것이 교육과 사상무장과 연관된 혁명사적지 답사이다. 학생들과 청소년 그리고 군 장

병들에게 특히 익숙한 영역이고 북한을 방문하는 외지인 방문객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다. 그들에게 익숙한 영역이기 때문에 남북한 민간교류에도 분명 의미 있는 필드이다. 물론 혁명사적지로 국한하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문화재의 정의를 남북이 공유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지평으로 넓힌다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민속학·고고학·문화재학(물질문화와 무형문화를 포함)의 영역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한국의 민속학계에서도 현재 관심을 갖고 있고 (한 예로 강정원 편저 『북한의 민속』 2020 참조), 파리의 유네스코본부와 한국유네스코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문화재 탐방, 문화재 복원, 문화재 공동연구 등의 사업으로 남북한의 민속학·문화재학계의 교류를 기초로 하고 이를 유네스코가 관련해서 정지작업을 진행하면서 나아가서 일정한 수준에서 문화·역사 탐방의 의미에서의 관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북의 입장에서는 걱정도 있을 것이나 남쪽이 인내심을 갖고 노선을 분명히 하고 북을 이해시키도록 꾸준히(즉 정책의 우왕좌왕 없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노선이란 남북의 민족문화의 이해와 증진이라는 면도 있을 것이나 보다 넓은 영역에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상호문화이해와 세계유산보전의 틀, 즉 전자와 비교해서 보다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측면도 있다. 이 두 측면을 함께 가져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융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2) 레크리에이션으로서의 관광: 이 부분은 경제적 효과 때문에 북이 (1)과 비교해서 관심을 더 갖고 정책적으로도 강조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제체체제와 떼어놓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지금은 중단된 금강산과 개성 관광이 여기서 대표적인데 특히 금강산이 그렇다. 북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참여하는 관광과 중국 중심의 관광, 이렇게 두 축이 있는데 현재의 국제제체체제와 이 체제 속의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중국 중심의 관광에 보다 더 큰 방점이 찍혀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 영역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직 불확실하다. 그렇지만 지향하는 바는 (1)을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비록 일정하게 통제된 형식이지만 마스투어리즘을 복원하고 재개하는 것이겠다. 여기서 한 가지 저자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다름아닌 남북관계와 북중관계의 분할접근이다. 관광은 그 토대가 열린 세계이다. 어느 집단만 어디에 올 수 있고 그 장소에 다른 집단은 배제시키는 행위는 관광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 현실적 필요에서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할 부분도 있겠으나 지향점으로는 한국의 관광객과 중국의 관광객 (그리고 여타 지역에서 오는 방문객)을 구분·분할하는 접근 방법이 관광의 이념에 기본적으로 배치되고 개선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섬 발리에서 그 섬의 주요 관광객인 호주, 중국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각기 갈 수 있는 지역이 만약 따로 한정되어 있다면 반응이 어떨겠는가? 더 이해 못할 부분은 이런 분할·배제의 방식이 분할의 대상인 한국과 중국 당사자에게도 그리 이상하지 않고 어찌보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이다. 현실주의적 접근이 원칙적 접근을 전적으로 대신할 수 없다. 이 둘은 공존할 수 있고 또 공존해야만 한다. 더하여 북한주민들의 기존 관광 관심과 연결하여 앞으로 이 영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북한 관광의 지평에 일정한 변화를 제시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평양시와 묘향산 등이 주요 방문지로 등장한다.

(3) 상상의 관광: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발표자의 지인 중에 지난 90년대 말에 남한으로 이주한 함경북도 출신 분이 있다. 그 곳에서 교원으로 일하던 분인데 남쪽으로 와서 꼭 보고 싶어 하시던 곳이 두 곳이었다. 월미도와 낙동강. 북의 ‘조선전쟁’ 역사물에 자

주 등장해서 익히 아시던 곳들이다. (1)과 (2)의 관광의 가능성이 불확실한 오늘, 북한의 자연과 문화, 그곳의 절경과 문화재를 학교교육과 시민교육의 영역에서 좀더 활성화하는 실천도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영역에서는 세대간 그리고 시대별 차이를 염두에 두는 실천도 중요할 수 있다. 그곳의 아름다운 산천이 좀더 임팩트가 있는 세대가 있다면 전통문화재의 모습과 사연이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고유한 동식물을 비롯한 생명들의 모습이 지구환경과 생명다양성 보전의 주제와 연결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좀더 친근하면서 호기심 있게 전달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문제는 역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관광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디를 지향하면서 관광을 할 것인가이다.





